



세종정책브리핑 Sejong Policy Briefing

제6차 핵실험 이후 북한 파워 엘리트 변동과 한국의 대응 방향

정 성 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핵심요약

- 2017년 9월 3일 북한은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했지만 그로 인해 매우 강력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작년 10월 7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 회의를 개최해 당 핵심기구 엘리트들의 약 1/4 이상 교체를 단행하면서 김기남, 최 태복과 같은 원로들을 퇴진시키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상대적으로 젊은 그의 측근들을 임명함으로써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했음.
 - 그리고 북한에서 주요 정책결정의 중심이 되고 있는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을 확대 개편하고 경제 엘리트들을 핵심 직책에 중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장기 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했음.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항일빨치산 2세인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직지도부장직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에 임명됨으로써 확고하게 2인자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음.
 - 그런데 최룡해는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 집안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도 장성택처럼 비운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당중앙위원회 정치 국 후보위원직에 선출됨으로써 30대 초의 젊은 나이에 북한을 이끌어가는 약 30명 내외의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의 고모 김경희보다 훨씬 승진 속도를 보였음.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의 서열에도 변동이 발생해 과거에는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순으로 호명했는데 최룡해 이름이 박봉주보다 앞서고, 박봉주 이름이 황병서 앞에 오는 큰 변화가 발생한 것임.

* 이 정책브리핑은 2018년 제1차 세종연구소 정세토론회(1.9)에서의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본고에 개진된 입장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그리고 북한군 총정치국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검열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이 고강도 처벌을 받게 되는 등 군대의 위상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음.
- 2018년 4월경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가 개최되면 국가기구에서도 세대교체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90세의 김영남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에 78세의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음.
 - 그리고 88세의 최태복이 최고인민회의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에 김정은의 측근인 63세의 박태성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될 것으로 전망됨.
- 이같은 북한 지도부의 세대교체와 함께 북한은 향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김정은이 경제·핵 병진 노선을 추진하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계속 추구하는 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이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과거보다 대외적으로 훨씬 유연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
 -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대남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이후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있는 데에는 ‘국가핵무력 완성’에 대한 그의 자신감과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인한 북한의 고립 심화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부에서의 당과 경제 엘리트의 영향력 확대 및 군부의 영향력 쇠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음.
- 제6차 핵실험 후 북한에서 김정은의 친정체제가 강화되고 김정은 권력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는 정상회담 없이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움.
 -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고 올해 안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부터 요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 재개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의 지도부 쇄신을 통해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현재까지 북한 내에서 물가가 폭등하는 등 경제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그러므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구상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임.
 - 핵과 미사일의 실전배치 가속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불가능하다면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모색하거나 남북 핵 균형을 통한 북한 관리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I. 문제의 제기

- 2017년 9월 3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폭탄’을 가지고 제6차 핵 실험을 강행해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10배 이상 위력을 가진 핵무기 개발 능력을 과시했음.
 - 이처럼金正은은 제6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데 성공했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유엔 안보리에서 매우 강력한 제재가 채택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켜金正은이 지난 10월 7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북한 지도부의 대규모 쇄신을 결정하는 배경이 되었음.
- 金正은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을 이끌어가는 30명 내외의 최고 핵심 파워 엘리트들로 구성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원들과 후보위원들,金正은의 정책결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그리고 최고군사정책결정 기관인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들 약 1/4 이상을 교체했음.
 - 이는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 제재로 인한 간부들의 동요를 보다 강력하게 통제하고 경제환경의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항일빨치산 2세의 대표주자인 최룡해는 노동당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부장직을 맡아 사실상 제2인자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최룡해가 ‘당중앙위원회 군사부장’ 직을 맡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¹⁾도 있어 그 같은 분석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새로 보선된 인물들만 공개했을 뿐 소환된 인물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회의 이후 핵심 엘리트들의 공개활동 여부를 가지고 소환된 인물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원회의에서金正은의 정책결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 6명이나 새로 선출되었지만 북한이 그들의 역할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공개활동 분야를 토대로 그들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본 브리핑은 이처럼 제6차 핵실험 이후 진행된 북한 파워 엘리트 변동의 내용을 주요 권력기관별로 분석하고 그것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박영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KINU Insight, No. 3 (2017), 24쪽 참조.

II.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엘리트 변동

-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정책결정의 중심이 되고 있음.
 - 그런데 북한의 경우 1974년에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결정된 후 정책결정의 중심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비서국(또는 정무국)으로 이동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은 당과 국가기구, 군대 등의 주요 정책결정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²⁾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원으로 5명이, 후보위원으로 4명이 보선되었는데, 이 중 박태성과 리용호는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한 케이스이므로 7명이 정치국에 새로 진입한 셈임.
 - 제7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총 28명 중 김정은을 제외하면 27명이므로 전체의 약 26%가 교체된 것임.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원으로 보선된 인물들은 박광호, 박태성, 태종수, 안정수, 리용호이고, 후보위원으로 보선된 인물들은 최휘, 박태덕, 김여정, 정경택임.
 - 이 중 박광호, 태종수, 안정수, 최휘, 박태덕은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새로 임명되면서 당연직으로 정치국의 위원과 후보위원직에 보선된 케이스임.

<사진 1>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자료: 『로동신문』, 2017/10/08.

- 2) 제7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 26조에 의하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선거하고 정무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정경택은 김원홍의 뒤를 이어 새로 국가보위상직에 임명됨으로써 당연직으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직에 선출되었음.
- 김원홍 전임 국가보위상처럼 정경택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직에도 선출되었음.

<사진 2>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보선된 인사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공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보선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박 광 호 동 지
박 태 성 동 지
태 종 수 동 지
안 정 수 동 지
리 용 호 동 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최 휘 동 지
박 태 덕 동 지
김 여 정 동 지
정 경 택 동 지

정 치 국 위 원 들



박 광 호 동 지



박 태 성 동 지



태 종 수 동 지

정 치 국 후 보 위 원 들



안 정 수 동 지



리 용 호 동 지



최 휘 동 지



박 태 덕 동 지



김 여 정 동 지



정 경 택 동 지

자료: 『로동신문』, 2017/10/08.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룡해는 사실상 당의 제2인자에 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음.
-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동료였던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차남인 최룡해는 다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보선되어 김정은과 함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무국, 당중앙군사위원회라는 당의 3대 핵심기구의 요직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음.
- 과거에도 당의 3대 핵심기구에서 모두 요직을 차지한 인물로는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 김정일 그리고 최룡해 뿐이었다는 점에서 최룡해에 대한 북한 지도자들의 신임은 매우 특별한 것임.
-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 최룡해의 이름이 박봉주 내각총리와 황병서 총정치국장보다도 앞섬으로써 최룡해가 외형상 김일성 시대 후계자 김정일과 비슷한 2인자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음.
- 최룡해는 당중앙위원회 부장직에도 임명되었는데 그가 맡은 부장직은 조직지도부장인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11월 20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주도 하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가 당에 대한 불손한 태도를 문제 삼아 20년 만에 처음으로 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음.
- 그리고 인민군 총정치국의 황병서 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을 비롯한 총정치국 소속 정치 장교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 최룡해의 주도 하에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가 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북한 노동당의 최고 권력부서인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부장직을 맡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표 1〉 김정은 집권 이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구성원의 변화

	제4차 당대표자회 (2012.4.11)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2013.3.31)	제7차 당대회 (2016.5.9.)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2017.10.7)
상무위원 겸 위원	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김정은 김영남 최룡해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김정은 김영남 최룡해 박봉주 황병서
위원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박봉주 장성택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국태 김영춘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광범기 김영철 리만건 양형섭 로두철 박영식 리명수 김원홍 최부일	박광호 박영식 양형섭 리수용 김평해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성 김영철 리용호 최부일 로두철 리명수
후보위원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김락희 광범기 김창섭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주규창 광범기 김창섭 문경덕 리병삼 로두철 조연준 현영철 김격식 최부일	김수길 김능오 박태성 리용호 임철웅 조연준 리병철 노광철 리영길	최 휘 박태덕 김여정 임철웅 조연준 김수길 김능오 리병철 노광철 정경택 리영길
구성원 수	32명	30명	28명	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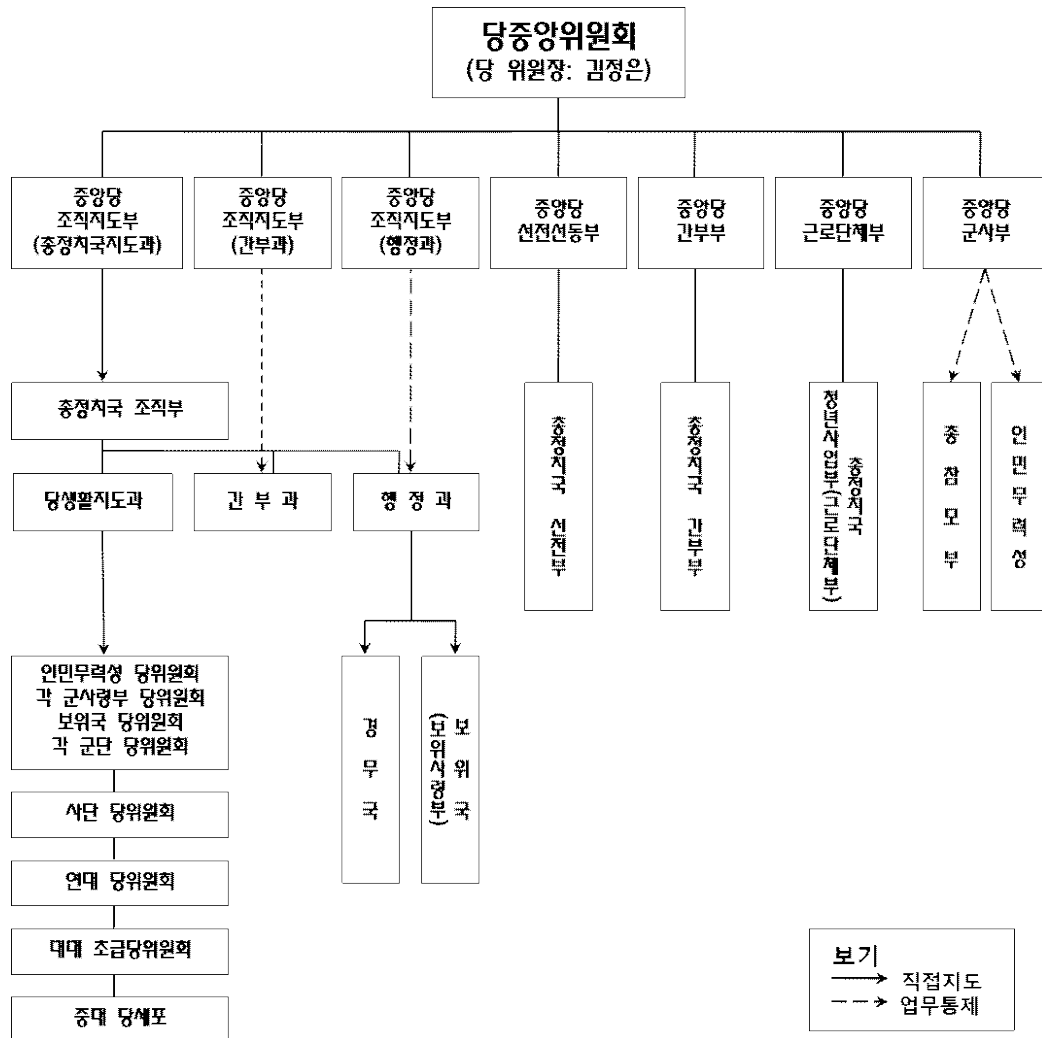
자료: 『로동신문』, 2012/04/12, 2013/04/01, 2016/05/10, 2017/10/08, 2017/10/09 등

주: 일부 주장처럼 만약 황병서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이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검열에 의해 6계급이나 아래인 상좌 계급으로 강등되었고 출당, 철직되었다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직도 박탈당했을 가능성이 있음.

- 김정은이 최룡해에게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이라는 핵심 직책을 맡긴 것은 제 6차 핵실험 후 국제사회의 초고강도 제재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부들의 동요와 민심 이반을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최룡해는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맡아 리영호 총참모장의 해임과 군 간부들의 대규모 교체를 주도했던 인물임.
- 그가 최근 인민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주도하면서 북한군 총정치국뿐만 아니라 총참모부의 핵심 간부들이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군 간부들에 대한 고강도 검열과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최룡해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이 아니라 군사부장을 맡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당중앙위원회 군사부장은 총정치국에 대한 지도 및 검열 권한이 없음.
- 다음 페이지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군 총정치국을 지도하는 당중앙위원회 기구는 조직지도부임.

-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군사부는 인민무력성과 총참모부의 각 정책부서들을 장악하고 이들 부서들이 노동당이 제시한 노선과 정책, 과제에 맞게 군사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이들을 철저히 집행하고 있는지 실무적으로 지도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임.³⁾
- 그러므로 최룡해가 당중앙위원회 군사부장직을 맡아 총정치국 간부들을 처벌할 수는 없음.

<그림 1> 군대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지도체계



자료: 박인수, “조선로동당의 당적 지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10쪽의 그림을 보완해 작성.

- 북한은 10월 8일 김정일 총비서 추대 중앙경축대회에 참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소개하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황병서 총정치국장 순으로 호명했음.
- 북한은 이전까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순으로 호명했는데 최룡해 이름이 박봉주보다 앞서고, 박봉주 이름이 황병서 앞에 오는 큰 변화가 발생한 것임.

3) 박인수, “조선로동당의 당적 지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102~103쪽 참조.

- 김정은이 이처럼 최룡해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에게 지나치게 힘이 실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여동생 김여정을 조직지도부의 제1부부장직에 임명했거나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 지금까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의 제1부부장이나 그 이상의 직책을 차지해야 했음.
 - 이 같은 관행에 비추어볼 때 김여정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되기 전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했을 가능성이 높음.
- 김여정이 이름이 조직지도부의 지도 하에 있는 국가보위성의 정경택 국가보위상 바로 앞에 호명되고 있고, 조직지도부의 제1부부장직을 맡고 있었던 조연준이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직으로 이동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김여정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직에 임명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 그런데 과연 김여정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서는 본부당을 지도할 능력이 되는가 하는 지적도 있음.
 - 그리고 조연준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후에도 공식 행사에서 여전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 가운데 호명되고 있어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장을 맡으면서 동시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직을 겸직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음.
 - 과거 김정일이 조직비서와 선전비서를 겸직했던 것처럼 김여정이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모두에서 제1부부장직을 맡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김여정이 당중앙위원회 행사부 제1부부장을 맡고 있다는 주장도 있음.

〈사진 3〉 최룡해와 김여정



자료: 『조선중앙통신』, 2014/05/20; 『연합뉴스』, 2017/04/15.

주: 좌측 사진: 2014년 5월 19일 최룡해가 리설주와 김여정 사이에 앉아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하고 있음.

- 우측 사진: 2017년 4월 15일 개최된 태양절 열병식에서 김여정이 최룡해에게 귀엣말로 논의하는 모습. 김여정의 직책이 최룡해보다 낮지만 최룡해가 어려워하는 태도를 보임.

- 최룡해는 어렸을 때부터 김정일과 가까운 집에서 살면서 김정일을 ‘형’, 김경희를 ‘누이’라고 부를 정도로 김씨 집안과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⁴⁾

4) 정성장, “[북한 인물 탐구]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과 최룡해 총정치국장,” 『NK Vision』,

- 그리고 북한 보도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최룡해는 현재도 김정은 가족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최룡해가 김정은이 제시한 핵무력 건설과 국제적 핵보유국 인정시까지 당 주도 위기관리를 하다가 장성택처럼 비운에 처할 가능성을 지적⁵⁾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음.

<사진 4>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선출 이전과 이후의 김여정 위상 변화



자료: 『연합뉴스』, 2017/06/08; 2017/12/30.

주: 2017년 6월 7일 소년단 8차 대회에 참석한 청소년 대표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김정은 뒤에 서 있는 김여정 모습(좌측 사진)과 동년 12월 29일 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축하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김정은과 김여정 모습(우측 사진).

- 김여정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되기 전 북한 매체는 공식행사에서 김정은이 수상자들에게 수여할 메달 등을 김여정이 김정은에게 전달하거나 김정은이 받은 꽃다발을 김여정이 건네받는 모습만을 주로 보여주었음.
- 그러나 김여정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된 후 북한 조선중앙TV는 처음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이 나란히 걸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김여정(1987년생)이 만 30세의 젊은 나이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되어 북한을 이끌어가는 30명 내외의 핵심 그룹에 공식적으로 포함됨으로써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1946년생)보다 훨씬 빠른 승진 속도를 보였음.

- 김경희도 만 30세의 나이에 당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이라는 차관급 직책에 임명되었으므로 매우 젊은 나이에 중책을 맡기는 했지만 김여정은 그보다도 빠른 만 27세의 나이에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직책을 맡았음.
- 김경희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에 선출된 것은 그의 나이 44세 때였는데 김여정은 만 27세의 나이에 대의원직에 선출되었음.
- 그리고 김경희가 당중앙위원회 위원직에 보선되어 북한을 이끌어가는 약 100명 내외의 핵심 엘리트 그룹에 들어간 것은 그의 나이 만 42세 때였는데, 김여정이 당중앙위원회 위원직에 선출된 것은 그의 나이 만 29세 때였음.
- 김경희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직을 거치지 않고 만 54세 때 정치국 위원

2013년 8월호, 41쪽 참조.

5) 박영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KINU Insight, No. 3 (2017), 39쪽 참조.

직에 선출되었는데 김영정은 그보다 더 빠르게 정치국 위원직에도 선출될 것으로 예상됨.

- 박광호의 경우 그동안 대외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전선동부 부부장직을 맡고 있다가 김기남을 대신해 선전선동부장직에 임명되면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핵심 직책들을 맡게 되었고 정치국에서도 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바로 다음에 호명되어 서열 6위를 차지했음.
 - 제7차 당대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김기남 전 선전선동부장도 서열 6위를 차지했음.
 - 박광호는 지난 10월 8일 개최된 김정일의 총비서 추대 20주년 중앙경축대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는 등 사회를 맡았음.
- 북한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리용호 외무상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시킨 것은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향후 외무상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김정은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계속하는 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상황 악화는 불가피할 것임.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은 건강이상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관련된 중요 대회에 반드시 참가하게 되어 있음.
 - 그런데 작년 10월 8일 개최된 김정일의 총비서 추대 20주년 기념 중앙경축대회 주석단에 기존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중 김기남, 최태복, 곽범기, 리만건, 리명수, 김원홍, 김능호, 리병철, 리영길의 불참해 이들 중 일부는 전날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환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박광호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재 김기남 선전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김기남의 소환은 확실함.
 - 최태복 과학·교육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곽범기 계획재정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만건 군수공업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가보위상직에서 해임된 김원홍도 소환된 것으로 판단됨.
 - 김능호는 10월 19일에 평안북도당위원회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연준 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퇴진을 앞둔 사람이 맡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장직으로 이동함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직에서 소환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그런데 그가 10월 8일 개최된 김정일의 총비서 추대 20주년 기념 중앙경축대회 주석단에 다른 정치국 후보위원들과 함께 착석한 점에 비추어볼 때 정치국 후보위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

III.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엘리트 변동

- 제7차 당대회에서 임명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당중앙위원회 비서’의 현재 직책명) 수가 9명이었는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6명이나 새로 선출되었음.
- 새로 선출된 인물들은 박광호, 박태성, 태종수, 박태덕, 안정수, 최휘임.
- 10월 8일의 김정일 총비서 추대 중앙경축대회 주석단에 나타나지 않은 김기남, 최태복, 곽범기, 리만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4명은 해임되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수가 11명으로 늘어나 교체 폭은 44%임.

〈표 2〉金正은 집권 이후 당중앙위원회 정무국(비서국)의 구성원 변화

	제4차 당대표자회 (2012.4.11)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2014.4.8)	제7차 당대회 (2016.5.9)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2017.10.7)
조선로동당 위원장 (제1비서)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비서)	김경희 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 강석주 김평해 곽범기 오수용	최룡해[근로단체?] 김기남[선전] 최태복[과학·교육] 리수용[국제] 김평해[간부] 오수용[계획재정] 곽범기[농업] 김영철[대남정책] 리만건[군수공업]	최룡해[조직] 박광호[선전] 리수용[국제] 김평해[간부] 태종수[군수공업] 오수용[계획재정] 안정수[경공업] 박태성[과학·교육] 김영철[대남] 최휘[근로단체] 박태덕[농업]
구성원 수	10명	9명	10명	12명

주: 제7차 당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가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이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으로,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명칭이 바뀜

- 김정은이 정책결정을 위해 주로 의존하는 인사들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므로 이들의 44%가 바뀌었고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면 앞으로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일정한 변화가 예상됨.
- 물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경제-핵 병진노선 고수 입장을 밝혔으므로 정책 변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새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선출된 박광호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전선동을 담당하게 되어 그의 이름이 부위원장들 중 조직을 담당하는 최룡해 바로 다음에 호명되고 있음.

- 박태성은 1955년생으로 2012년경부터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군사 담당 부부장으로 있다가 2014년 5월부터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2016년부터 ‘위원장’으로 명칭이 바뀜)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박태성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시절 각종 연구소(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와 과학 관련 건설장(과학자살림집건설장, 은하과학자거리), 병원(구강병원건설장), 마식령스키장과 여가운동시설(문수물놀이장건설장,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 군수공장, 군부대(제851군부대, 장채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월내도방어대, 제526대연합부대지휘부 등), 군 관련 시설(인민군열사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과 성흥혁명사적지) 등에 대한 김정은의 현지지도와 체육경기 관람 등에 자주 수행했던 인물로서 평안남도당위원회 위원장을 3년 정도 맡아 지방 경험을 쌓은 후 중앙당으로 복귀한 김정은의 핵심 측근임.
- 박태성은 2013년에 북한의 파워 엘리트 중 김정은의 공개활동에 네 번째로 많이 수행했고, 동년 6월에는 김정은의 현지지도 25건 중 20건을 동행해 1위를 차지했음. 호명 순서도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이어 두 번째인 경우가 7차례였음. 최룡해가 불참한 행사에 그가 동행한 사례도 있었음. 2013년에 박태성의 이름은 황병서 당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보다 먼저 호명되었음.

〈사진 5〉 박태성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자료: 『로동신문』, 2013/09/09; 『연합뉴스』, 2014/05/14.

- 주: - 좌측 사진: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에 대한 김정은의 시찰에 동행한 박태성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 우측 사진: 평안남도 소년단 연합단체대회에서 연설하는 박태성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

- 박태성이 현재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과거 최태복이 맡았던 ‘과학·교육’ 일 가능성이 높음.
- 박태성이 2017년 10월 25일 개최된 제6차 전국범무일군대회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부일 인민보안상과 함께 참석한 점에 비추어볼 때 그가 과거에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최고인민회의 의장까지 맡았던 최태복의 역할을 이어 받은 것으로 판단됨.
- 2007년 2월 28일 개최되었던 제4차 전국범무일군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태복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간부들이 주로 참석했음.

- 2012년 12월 5일 개최되었던 제5차 전국법무일군대회에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태복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전승훈 내각 부총리 등이 참가했음.
- 박태성은 또한 지난 11월 18일 제3차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한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학자들을 위하여 조선사회과학자협회가 개최한 연회에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인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태형철, 사회과학원 원장 리혜정 등 교육과 연구 분야 간부들과 함께 참석했음.

○ 김정일 사망 전에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총무부장으로 있다가 2012년 4월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맡게 되어 중앙당에서 멀어졌던 태종수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당중앙위원회 군수 담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을 담당하게 되었음.

- 태종수가 군수공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2017년 12월 1일 개최된 제8차 평양군수공업대회에서 그가 보고를 맡음으로써 분명하게 확인됨.
- 1936년생인 태종수는 대학 졸업 후 기계제작기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북한의 대표적인 군수공장인 희천정밀기계공장의 지배인,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의 책임비서와 내각 부총리 등을 역임한 군수공업, 기계공업 분야의 전문가임.

○ 리만건 전 군수공업부장은 2017년 12월 28일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당·국가·경제·무력기관 간부 연석회의에 참가했음.⁶⁾

- 그리고 2018년 1월 1일 고위 간부들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도 참석했으나 그가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다음 열에 자리함으로써 그가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되어 다른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음.
- 고위간부들의 참배시 맨 앞줄 가운데에 김영남과 박봉주가 서 있었고, 양옆으로는 박태덕·최휘·김평해·양형섭·태종수·안정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노두철 내각 부총리, 리용호 외무상이 자리했음.
- 그리고 둘째 열에 리만건 전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김수길 평양시당위원장, 임철웅·김덕훈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검열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음.⁷⁾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과 정치국 후보위원직에 선출된 최휘는 근로단체와 체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 2017년 10월 17일 최휘는 ‘전국 도대항 군중체육대회 2017’ 개막식에서 개막사를 했음. 예전에는 군중체육대회 개막사를 당중앙위원회 근로단체 담당 비서였던 최룡해가 도맡아했음.
- 최휘는 또한 작년 11월 15일 김정은의 노작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6) 『로동신문』, 2017/12/29.

7) 『연합뉴스』, 2018/01/01.

기치따라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발표 1주년 기념 연구토론회에 여맹 간부들과 함께 참석했는데 이는 그가 근로단체를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최휘는 김정은의 핵심 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지만 최룡해가 1990년대에 청년동맹 1비서직을 맡고 있었을 때 그 휘하에서 과외지도총국장직을 맡고 있었던 인물로 최룡해의 측근일 수도 있음.
- 1954년생인 최휘는 2000년 5월에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을 이끌고, 2002년에는 8·15민족통일대회 북측 대표단원으로 서울을 다녀가는 등 한국 방문 경험이 있음.
- 최휘는 과거 장성택과 최룡해가 맡았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직에도 임명되어⁸⁾ 그의 위상이 갑자기 매우 높아졌음.

<사진 6> 최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자료: 『연합뉴스』, 2017/10/08; 2017/10/22.

- 주: - 좌측 사진: 2015년 모란봉악단 이끌고 중국으로 출발할 당시의 최휘
- 우측 사진: 노동당 제1부부장 재임 당시 김정은을 밀착 수행하는 최휘

- 황해북도당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박태덕은 정무국에서 농업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박태덕 부위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세포지구 축산기지 준공식에 박봉주 내각 총리, 고인호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과 함께 참가한 사실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함.
- 1997년 서관희 처형 이후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었던 당중앙위원회 농업 담당 비서(부위원장) 직책에 김정은이 7차 당대회 이후부터 책임자를 계속 임명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보다 농업과 식량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 부장 수는 대략 18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번에 7명이 나 보선되었으므로 교체 폭이 대략 39%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8) 로동신문 2017년 12월 20일자 ‘2017년 동아시아축구연맹 E-1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북한 여자축구선수들의 귀국 관련 보도에서 공항에서 이들을 맞이한 최휘를 ‘국가체육지도위원장’으로 소개했음.

IV. 당중앙군사위원회 엘리트 변동

- 제7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은 모두 12명이었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1명 중 이번에 4명이나 소환, 보선되었다면 교체 폭이 36%나 됨.
 -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된 인물들은 최룡해, 리병철, 정경택, 장길성임.
 - 이 중 정경택은 국가보위상이고, 장길성은 정찰총국장임.
- 고위탈북자 J씨의 증언에 의하면 정경택은 공군 정치위원, 평안북도 보위국장, 국가보위성 부상 직을 맡고 있다가 국가보위상으로 승진한 인물임.
 - 일본 아사히신문 2017년 11월 27일자는 정경택이 김일성 시절 경제참모로 일한 정준택 전 부총리의 아들로 공군장교와 지방 보위성 간부를 거쳐 지난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앙군사위원회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발탁됐다고 보도했음.⁹⁾
 -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도 정경택이 정준택 전 내각 부총리의 아들이며 ‘황주비행장’이라 불리는 공군사령부 3사 정치위원을 역임하다가 총정치국 기관당위원회 책임비서를 거쳐 2016년 7월 국가안전보위성 정치국 조직 담당 부국장을 맡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2015년 11월 8일자 로동신문에 발표된 리을성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정경택 이름이 북한군 간부들 가운데 이름이 나오는데¹⁰⁾ 정경택이 이미 이때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을 맡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고위탈북자 J씨의 증언에 의하면 장길성 정찰총국장은 보위사령부(현재는 명칭이 ‘보위국’으로 바뀜) 군단지도부장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음.
 - 장길성이 1947년생으로, 1984년에 정찰총국의 전신인 총참모부 정찰국 7부 부부장, 1993년에는 같은 국 7처장을 역임하는 등 공작기관 근무 경험이 풍부하다는 분석도 있음.¹¹⁾
 - 또한 장길성이 2010년 이후부터 정찰총국에서 조직 담당 부총국장을 맡아왔다는 분석도 있음.¹²⁾
 - 장길성은 1999년 4월 13일 최고사령관 명령에 의해 대좌에서 소장으로 승진했음.
 - 그리고 2017년 4월 14일 최고사령관 명령에 의해 중장에서 상장으로 승진했는데 이때 최고사령관 명령에서 장길성의 이름이 조남진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바로 다음에 언급되고 있음.¹³⁾ 이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장길성이 2017년 4월경에 정찰총국장직에 임명되면서 중장에서 상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추정됨.
 - 장길성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보

9) 『뉴시스』, 2017/11/25.

10) 『로동신문』, 2015/11/08.

11) 장길성의 경력을 이와 같이 소개한 일본 도쿄신문은 또한 장길성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에 앞서 2017년 9월 이전에 정찰총국장에 임명되었다고 보도했음. 『연합뉴스』, 2017/10/13.

12) 『연합뉴스TV』, 2017/12/18; 『세계일보』, 2017/12/19.

13) 『로동신문』, 2017/04/15.

선되어 당중앙군사위원회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3〉 김정은 집권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의 변화

	제4차 당대표자회 (2012.4.11)	제7차 당대회 (2016.5)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2017.10.7)
위원장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부위원장	최룡해 리영호		
위원	김정각 김영춘 김명국 김경옥 김원홍 정명도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주규창 최경성 장성택 현철해 리명수 김락겸	황병서 박봉주 박영식 리명수 김영철 리만건 김원홍 최부일 김경옥 리영길 서홍찬	최룡해 박봉주 황병서 박영식 리명수 최부일 (김경옥) 리영길 서홍찬 리병철 정경택 장길성
구성원 수	19명	12명	12명(?)

자료: 『로동신문』, 2012/04/12, 2016/05/10, 2017/10/08, 2017/10/09 등

주: - 소환/해임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은 괄호 안에 표기

- 일부 주장처럼 만약 황병서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이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검열에 의해 6계급이나 아래인 상좌 계급으로 강등되었고 출당, 철직되었다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도 박탈당했을 가능성이 있음.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또는 후보위원으로서 2017년 10월 8일 개최된 김정일 총비서 추대 중앙경축대회 주석단에 나타나지 않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인 리명수, 리만건, 김원홍, 리영길 중 리만건 전 군수공업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에서 소환된 것으로 판단됨.
- 리명수 북한군 총참모장은 북한 병사의 귀순사건 열흘 후인 지난 11월 24일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북측 초소 등을 극비리에 시찰한 것으로 알려져 일단 신상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장기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향후 지위 변동의 가능성이 있음.
-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총국장도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후에 공개활동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향후 지위 변동 가능성이 있음.
-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은 2017년 10월 7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에 새로 선출되었지만 10월 8일 개최된 김정일의 총비서 추대 20주년 기념 중앙경축대회 주석단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지위 변동의 가능성이 있음.
- 그리고 김영철 전 경찰총국장과 김경옥 전 조직지도부 군사담당 제1부부장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에서 소환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V.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향후 파워 엘리트 변화 전망

- 올해 4월경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가 개최되면 국가기구에서도 세대교체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그동안 형식상의 국가수반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해왔음.
 - 그러나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 외교가 필요함.
 - 따라서 2018년 4월경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가 개최되면 90세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퇴진하고 그 자리에 78세의 국제 담당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나 62세의 리용호 외무상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됨.
 - 만약 리수용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리용호가 리수용을 대신해 국제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교체될 것으로 전망됨.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최태복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소환되고 박태성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음.
 - 그러므로 오는 4월경 최고인민회의 회의가 개최되면 최고인민회의 의장직에서 88세의 최태복이 공식적으로 퇴진하고 김정은의 측근인 63세의 박태성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자리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됨.

<사진 7>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선출된 국무위원회 구성원들



자료: 『로동신문』, 2016/06/30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가 개최되면 국무위원회 구성원들 중 당중앙위원

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소환된 인물들을 그 후임자들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에 당중앙위원회 선전 담당 부위원장이 김기남에서 박광호로,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 담당 부위원장이 리만건에서 태종수로, 국가보위상이 김원홍에서 정경택으로 바뀌었음.
- 그러므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가 개최되면 국무위원회에서 김기남, 김원홍, 리만건이 소환되고 박광호, 정경택, 그리고 태종수가 국무위원회 위원직에 보선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10월 12일의 만경대혁명학원 설립 20주년 기념보고대회 이후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원홍 총정치국 제1부국장, 조남진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림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등 총정치국의 핵심 간부들과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거의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

- 그리고 군 관련 각종 행사에 군부의 핵심 3인(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중 박영식 인민무력부장만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

○ 그러므로 만약 총정치국장이 교체된다면 현재로서는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출신의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 그 직책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음.

- 그리고 총참모장과 인민무력부장, 총정치국 조직부국장과 선전부국장,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 군부의 핵심 직책 책임자 상당수가 바뀔 수 있음.

2. 한국정부의 대응 방향

○ 이같은 북한 지도부의 세대교체와 함께 북한은 향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김정은이 경제·핵 병진 노선을 추진하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계속 추구하는 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이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과거보다 대외적으로 훨씬 유연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
-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대남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이후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있는 데에는 ‘국가핵무력 완성’에 대한 그의 자신감과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인한 북한의 고립 심화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부에서의 당과 경제 엘리트의 영향력 확대 및 군부의 영향력 쇠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음.

○ 제6차 핵실험 후 북한에서 김정은의 친정체제가 강화되고 김정은 권력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없이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움.

-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고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부터

요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 재개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의 지도부 쇄신을 통해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현재까지 북한 내에서 물가가 폭등하는 등 경제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그러므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구상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임.
-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핵과 미사일의 실전배치 가속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불가능하다면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모색하거나 남북 핵 균형을 통한 북한 위협 관리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끝